ORIA 개방형솔루션위원회 정례회의(4차) 개최 결과

('25.03.27.(목), ORIA 사무국)

Ⅰ.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5.03.18.(화), 16:00~17:30 / 비대면 온라인(Zoom)

○ **(논의내용)** Yonsei-VIAVI-SUTD 데모 소개, '25년 마일스톤 논의 등

○ **(참 석 자)** 김성륜 개방형솔루션위원장, 위원, 사무국 등 14명

- 김성륜 교수(연세대), 정희상 실장, 고남석 실장, 최성우 책임(이상 ETRI), 홍훈의 수석(쏠리드), 김규수 부장(VIAVI), 이종민 본부장, 신희성 본부장(이상 HFR), 정성훈 이사(삼지전자), 김태윤 책임(LG전자), 박영완 상무(퀄컴), 최양수 상무(이루온), 김현수 매니저(사무국)

Ⅱ. 회의 결과

□ 주요내용

① Yonsei-VIAVI-SUTD 데모 소개 : 김규수 부장(VIAVI)

○ VIAVI 오픈랜 관련 활동 소개

- 오픈랜, 6G, AI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 활동을 진행 중
- O-RAN Alliance 활동 및 PlugFest 진행, NTIA NOFO 프로그램 참여, 오픈랜 서비스 제공을 위한 VALOR랩 개소 등 전반 활동 중
- VALOR랩은 모든 E2E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버추얼랩과 물리적랩이 공존, OTIC 시험 전에 사전 테스트가 가능

○ MWC 2025 Yonsei-VIAVI-SUTD 데모 소개

- 이번 MWC는 AI, 디지털트윈, 6G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는데, VIAVI도 6G 아이템을 가지고 몇 가지 데모를 진행

- 삼성, 노키아와 협력하여 에너지 세이빙, 시멘틱 커뮤니케이션 XR, 디지털트윈 AI 등 다양한 솔루션을 실험하는 데모를 소개

- 또한, VIAVI, 연세대, SUTD와 3자 협력을 통해 rApp, xApp 개발 등을 지원하는 AI RSG(RAN Scenario Generator) 솔루션을 소개

② MWC 2025 및 3GPP 6G Workshop Perspective : 김성륜 위원장

ㅇ 이번 MWC는 현재 시장 상황(통신사 수익률, 제조사 투자비용 등) 고려해서 차분한 분위기였음

ㅇ 3GPP 표준회의 및 6G 워크숍(3.10~14)에서 공식적인 6G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5G의 회의감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시장에서 5G에 이어 6G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6G의 성공을 위해 스펙보다는 유스케이스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전체적으로 복잡한 설계보다는 시스템에서 일부 업그레이드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AI 네이티브 디자인 등의 키워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AI-RAN Alliance가 3GPP에서 앞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 O-RAN Alliance가 3GPP에 종속되는 형태라고 보면 AI-RAN Alliance는 표준화는 직접 다루지 않지만 AI-RAN을 서포트할 수 있는 HW·SW를 포괄하여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③ 위원회 2025년 마일스톤

ㅇ 위원회 활동 결과로 백서 발간(상반기 진행 예정)이 중요한데, 국내 오픈랜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제가 적절할지 또는 위원회 R&R 변경 등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위원회 R&R을 보면 6G 포럼에서 발간했던 오픈랜 백서와 유사해질 수 있어 의미가 없고, 새로운 트렌드(AI-RAN과 O-RAN의 관계 등)를 반영하기엔 R&R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④ 오픈랜 심포지엄 2025 추진현황(개최 일시 검토 중)

○ 현재 심포지엄 프로그램위원회(위원장: 이경한 교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픈랜 장비 수요자인 해외 사업자(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를 초청을 준비하고 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 중에 있음

□ 후속조치 계획

○ 위원회 R&R 의견수렴 및 정리, 백서 발간 준비

○ ORIA 개방형솔루션위원회 정례회의(격월로 진행)

- (일시/장소) 2025년 5월 중(시간, 장소 미정)

Ⅲ. 회의 전경



끝.